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신년호 | 2014년 1월 22일

발행인 유병우
 편집인 이성운·한석홍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번지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택시발전법, '국회통과'

감차보상 연료다변화 등 업계 요구 수용 면허취소 등 처벌강화 법 개정 추진해야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약칭 택시발전법)이 2013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은 정부의 공포절차가 남아있지만 택시발전법안은 지난해 6월 24일 대중교통법안의 대체 입법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이어서 통과이력적인 공포 절차만 남아있어 사실상 확정 법률안이나 다름 없다.

본문 23조 부칙 6조로 짜여 있는 택시발전법안은 첫째 택시운전자와 사업자 (개인택시 포함)에 대한 실질적 지원, 둘째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방안, 셋째 택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대책 등이 주요 골자이다.

택시에 대한 지원으로는 ▲복지 기금 조성 ▲공영 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 마련 ▲운송 비용 운전자 전가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과잉 공급 지역에서의 신규 면허 발급금지 ▲정

부·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 업계 자체 부담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 감차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책으로는 ▲승차 거부나 카드결제 거부·도급택시 운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 관리 시스템 구축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택시의 연료 다변화와 경유택시 유가 보조금 지급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도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 등 운전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강화된 것은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할 대목으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당장은 어려워도 법 시행 과정에서 독소 조항 제거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에
 <글 김관술>

2014년 '화이팅' 연합회 시무식 갖고 힘찬 출발



▲ 연합회는 2014년 1월 7일 첫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택시발전법 국회 통과에 따른 하위법 제정 등 대응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 및 공제조합은 '14년 1월 2일 10시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공제조합 한석홍 이사장 연합회 이성운 실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거행 하였다.

직원들의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에 유병우 회장은 나 혼자 복을 많이 받아서야 되겠느냐 복은 우리 모두 함께 받자며, 덕담을 건넨 뒤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작년 말일 택시법이 통과되어 금년에는 업계의 변화가 클 것이며 하위법 제정이 예정되었으므로 직원 여러분도 차질없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고 갑오년 말띠 해에도 직원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 뒤 직원 모두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힘찬 업무를 시작하였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13-2-963(2013. 12. 30 현재)



신한My-Taxi 행복대출

개인택시 사장님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보험담보 대출상품입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5.13% 이상

원금분할상환방식, 금융채6개월물, 2013. 12. 24 기준 / 최대 연 0.6%까지 우대가능
 * 신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 보유시 0.2% * 신한카드 결제계좌 당행 지정시 0.1% * 한국 스마트(이비)카드 입금계좌 당행 지정시 0.2% * 당행 예금 또는 적금 보유시 0.1% * MyCar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0.2% * VM뱅크(S뱅크) 가입시 0.1%

-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년 이하 · 원금분할상환: 3년 이상~5년 이하
- 준비서류 ·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 차량등록원부 · 소득증명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고금리 할부대출 전환은
MyCar
 신차 대한 대출

신차구입은 역시!
S-MORE
 MyCar대출

대출금리 최저 연 4.71% 이상

COFIX(잔액) + 2.6%, 6개월 변동금리, 2013. 12. 24 기준 / 최대 연 0.8%까지 우대가능
 * 급여이체시 0.2% * 신한카드 결제계좌 전환시 0.1% * S20클럽 고객 0.1% * VM뱅크(S뱅크서비스 포함) 가입고객 0.1% * 거주식/적립식 예금(주택청약 종합저축 포함, 1년제, 인터넷 신규 포함) 또는 신탁 가입고객 0.1% * 아파트관리비 0.1% * 공과금(지모) 자동이체 0.1% * 수해 침수피해 차량 확인 0.2%



신한은행
 www.shinhan.com

은행에 관한 모든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77-8000, 1544-8000, 1599-8000

*대출 취급시 고객부담으로 인자대금(50%) 등 부대비용과 대출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 차등 적용되며,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영업점직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특집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 인터뷰

택시 발전법은 기대에 차지 않지만 그래도 큰 걸음을 옮겼다

유병우

연합회 회장은 제7대 회장으로 취임 직후 가칭 '택시산업진흥특별법' 입법을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경영난 해법을 제시하였다.

16만 4천명 개인택시사업자의 총수인 유 회장이 택시산업진흥 특별법을 청원하자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여당의원도, 야당의원도 따로 따로 '택시산업진흥특별법률안'을 앞다투어 발의했다.

깊은 수렁에 빠진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택시산업진흥특별법밖에 없다고 확신한 유 회장은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을 연합회로 초치 택시관련 입법을 청원하기도 하고 전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들과 함께 여·야 정당대표와 국회의장을 방문 택시산업진흥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확답을 얻어내는 입법청원 활동을 해왔다.

금방이라도 입법이 추진될 것 같은 뜨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발의된 '택시산업진흥특별법률안'은 번번히 회기를 넘겨 폐기되고 또 발의되는 숨바꼭질을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회장은 좌절하지 않고 택시관련법을 끈질기게 추진한 결과, 드디어 2013년 1월 1일 새벽, 국회에서는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222명이 압도적으로 찬성 표결하여 통과 시켰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 택시업계에도 밝은 서광이 비추겠구나 라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13년 1월 22일 우리의 염원이 담긴 대중교통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반송조치하는 패악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비상한 시국을 맞아 택시 4개단체는 비상대책 위원회를 통해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부산, 광주, 여의도에서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하였다.

7년여동안의 각고의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2013년 12월 31일 결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도 유회장은 조합원들의 여망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본지는 '택시법' 입법을 위해 16개 시도이사장과 함께 진두지휘한 우리 연합회 유병우 회장을 인터뷰 했다.



▲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마라는 식으로 업계와 사업자들도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업권보호와 권익증대만을 생각하고 초지일관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① 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택시산업진흥특별법' 입법을 추진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버스업계의 반대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2013년 12월 31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법' 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7년동안의 입법추진 대장정 행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참으로 먼길을 되돌아 왔습니다. 7년여 전 연합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택시관련 특별법' '대중교통 육성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택시업계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을 통하여 거의 매년 의원입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마라는 식으로 업계와 사업자들도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지일관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 결과 택시업계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았으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끌어 냈습니다.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은 애초 우리 업계가 기대했던 바 하고는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큰 발걸음을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님을 비롯한 16만 4천여명 사업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위법(시행령,시행규칙 등)제정 시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② 택시발전법과 국토교통부의 택시발전종합대책 내용 상 개인택시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만한 대표적인 내용을 세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 개인택시를 비롯한 택시 4개단체는 택시발전법안이 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기에 대중교통법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한 택시발전법안에 대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합심하여 강력하게 통과시킨 법률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해야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시기는 공포 후 1년부터 시행 하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어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꼽는다면 먼저 그동안 정부가 택시정책을 그때 그때 땀질식으로 처방하였던 정책들이 택시발전법안 시행 이후에는 택시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하기 위하여 택시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기계획을 세워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택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택시가 택시수요에 비하여 공급과잉상태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택시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재산정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더불어 택시감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차계획,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재원 등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택시종합대책 내용으로는 택시요금체계 개편, 택시사용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등이 있습니다.

③ 택시발전법은 택시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신규면허는 중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감차예산으로 감차추진 등이 법률로 정해져 택시산업 경쟁력을 어느정도 높일수 있다고 보는데요.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현재까지 택시총량 산정은 지자체장의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선심성 증차 요인으로 작용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량산정 시 업계가 적극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택시총량 산정을 하여 수요·공급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택시총량보다 택시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



연료다변화·유가보조금 지급은 16만 조합원 성원의 결과

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우선 신청하지 아니하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경우 이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감차계획 달성, 감차계획이 없는 경우, 감차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우리 개인택시의 최대 화두인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니 사업자 여러분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차재원 마련에 있어 택시업계의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한 개인택시업계가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국가가 택시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의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 실시가 예정되므로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총량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정부의 택시 감차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LPG가격 안정을 위해 CNG택시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2015년 9월부터는 경유택시를 허용, 버스나 화물자동차에 준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단한 성과가 아닌지요.

⇒ 지금까지 택시업계가 부진을 면치 못했던 큰 원인중에 하나가 LPG가격의 고공인상이었습니다. LPG부탄은 택시연료로 사용한 초기, 원유 정제과정의 부산물로서 저렴한 가격에 운송수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만, 오랜 기간동안 독과점식 공급으로 이제는 택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나 다른 연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경유는 약 60%정도를 싼값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 수급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연료다변화 정책은 매우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CNG연료와 관련해서는 충전소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연료다변화, 유가보조금 지급등의 정책이 반영된 것은 16만 4천명 사업자 여러분의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로 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광역콜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회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0개의 택시 콜

서비스 번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콜 번호가 제각각 이어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만, '14~15년 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로 택시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번호(1333)를 가진 통합콜센터와 전국 570개 콜사업자를 연계하여 승객 서비스를 강화하게 됩니다. 승객의 위치를 중심으로 최단거리에 있는 택시를 배차함으로써 승객 대기시간 및 공차운행을 감소(연간 약 4,800억원 유류비 절감예상)하여 공성·안전성·지속성을 확보하여 사업자 여러분의 수입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별도의 번호와 관리체계를 달리 해야하며, 지역별로 분화되어 있는 지역콜센터가 통합광역콜 제도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감차보상기금을 조성하여 이 재원을 통해 실거래 가격으로 감차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 하였습니다.

⑥ 올해 회장님과 연합회가 구상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 개인택시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한 감차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으며 납부한 부가세의 90%를 환급받고 있는 법인택시(일반과세자)와 달리 개인택시는 유류구매 및 차량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년 개인택시 유류구매 부가가치세 납부액 : 약 1,441억원)

문제점으로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택시에 사용되고 있는 LPG 가격이 급등하여 영세한 개인택시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택시 연료비는 운송수입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LPG 등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감소를 생계유지가 곤란(개인택시 월 평균 매출액('12년):약 183만원 수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유가보조금으로의 감차재원

마련은 절대불가하며 개인택시 연료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감차보상기금을 조성하여 이 재원을 통해 실거래 가격으로 감차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에어백의무장착에 따른 재정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하였습니다.(법률 제12020호, '13.8.6공포, '14.2.7시행, 에어백 설치에 관하여는'14년 8월7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에는 적극 찬성하나 택시업계의 열악한 영업환경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경제적 가중이 더욱 심화되어 사업의지를 저하 시키며, 결국은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 이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 장착 비용:약 30~100만원이 추정되는 바, 에어백 설치에 따른 차량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며, 운송원가 상승, 택시 요금 인상요인,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에어백 설치와 동일한 목적(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으로 진행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은 국비50%, 지자체 50% 총 336억원 국비지원이 이루어진 전례도 있습니다. 동 설비 부착 소요비용 전액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⑦ 갑오년 말띠해를 맞이하여 16만 조합원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애초 개인택시업계가 주장한 내용이 상당부분 제외되어 아쉬움이 매우 큼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를 비롯한 택시4개단체의 주장과 지향하는 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합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향후 4개단체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사업자 여러분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추후 하위 법령 제정 시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년 갑오년은 청마의 해 입니다. 청마는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6만 4천명 사업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조합 제 11대 이사장에 김민환 당선자 취임

“투명한 조합 · 합리적인 조합 경영을 실현할 터



2014년 1월 2일 인천조합 회의실에서 김민환 제 11대 인천조합 이사장은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합 임직원과 공제지부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에 김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이 추진해 온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이어 받아 내실을 강화하여 조합원에 대한 복지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조합에서 경영하고 있는 충전소 경영에 정량 정품의 LPG를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조합

원에 공급하여 실질적인 수익이 보장되도록 하여 조합원의 조합충전소 이율을 높ی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변화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담보 상태에서 경영되어 왔다'고 말하고 택시 발전법이 제정된 2014년을 맞이하여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첫 해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재평가하여 내실있는 조합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근에는 현직 이사장이 재신임을 얻지 못하고 낙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은 더 이상 재신임을 받지 못하는 이사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투명한 조합, 합리적인 조합을 만들기위해 모든 역량을 받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조합 제 12대 이사장에 이치현 당선자 취임

3,919명의 조합원이 화합하는 조합 만듭시다.



1월 2일 제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 12대 이사장에 이치현 당선자가 취임했다.

3,919명의 조합원의 환영을 받으며 취임한 이치현 이사장은 '내실있는 공제 지부경영으로 흑자경영을 달성 조합원들의 공제 부담금을 어떤 경우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 10대 이사장을 역임한 이치현 이사장은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조합에서 관

리하여 차량 양도가격 인상을 추진 감차보상에 반영 차량을 양도하는 조합원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과잉으로 추락한 개인택시운송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중앙경제연구소에서 산출한 제주지역 감차댓수 1,098대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감차 비율 7대 3으로 따져 빠른 시일 내에 감차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차량 부제 변경 ▲서귀포 지부에 공제직원 파견근무 ▲LPG 충전소 경영개선으로 흑자경영 추진 ▲개인택시 호출단체에 운영비 도비 지원 등을 임기내에 실현하겠다고 취임식에서 제주조합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치현 이사장은 이사장 선거로 발생한 조합원들의 분열을 화합으로 치유 3,919명의 조합원이 단결 복지 조합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유류 - 국내전용 면제
일반 - 국내전용 5,000원(초년도 정상청구, 차년도 이후 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서비스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혜택(면세 및 보조금 혜택)

- 한국석유공사 공시가 기준으로, 국세청 및 국토해양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일 4회 한도/부제일 이용권, 충전회차 간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1회 충전한도량 72리터에 한해 지급 (한도 초과 시 해당건에 대해 지급 거절)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000원당 10 M포인트 적립

전국 400개 하이카프리카 지정점에서 자동차 부품 및 용품 최고 50% 할인

종합건강검진 예약 시 40~60% 할인

현대카드M 서비스

모든 가맹점에서 1,000원당 5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되며(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현금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등은 적립 제외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적립된 M포인트 및 세이브-오토로 최고 200만원 절약
- 세이브-오토 : 신차 구매 시 세이브-오토 30만원 이용하고, 적립된 M포인트로 3년간 상환하는 서비스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9.5%의 연체이자율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설명 및 약관 참고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31209-132611호(2013.12.09)



전자납부번호 시행(예정) 안내

최근 지로 납부의 빠르고 신속한 이용을 위해서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업무가 아닌 지로수납용 기계를 이용한 방법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및 은행의 현금지급기의 경우 전자납부 번호의 유·무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기계가 있어 조합원의 민원이 더러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

지로를 이용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지로번호와 전자납부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지로번호는 7자리의 숫자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지로번호 확인으로 어느 지부인지의 여부만 알 수 있는 숫자이며, 전자납부는 개인적으로 주어진 번호로 입금 시 입금자의 확인이 가능한 번호이다.

※ 참고 ※

현금지급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ATM / RATM / CDP / CD / APTM 일반적으로 ATM은 입출금이 가능한 현금입출금기를 말하는 것이고 CD기는 현금출금기를 말한다.CDP의 경우 입금은 되지 않으나 출금과 통장정리가 가능한 기종을 말하며 RATM은 입금한 돈이 자동으로 출금으로 돌아가는 신형 입출금기를 말한다. ATM은 CD기와 다르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폐 감별부가 있다.

공제조합에서는 현재 지로상 위치 선정의 부적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로의 재고를 소진한 후 지로양식을 변경하고 금융결제원으로 부터 승인을 득한 후 전자납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여 발행할 예정이며, 2014년 초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로 수납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전자납부 번호의 위치는 금융기관용 지로통지서에 “전자납부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며 은행 수납인이 찍히는 곳(용지 우측 하단)에 번호가 배정되어 위치할 예정이다.

전자납부 번호를 금융결제원에서 부과 받게 되면 인터넷 가입이 따로 필요 없으며 전자납부 번호만가지고 일반 은행기기 뿐만 아니라 일반 편의점에서도 통장 혹은 카드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자납부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시에도 www.giro.kr 및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현재 은행창구업무를 통해 들어오는 지로에 대한 수수료는 건당 210원을 공제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 납부 수수료를 이용하게 된다면 수수료가 90원으로 공제조합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합원의 간편한 수납업무와 공제조합의 수입사업을 위하여 전자납부 번호를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

대인 실무지침서 개정작업



▲ 자동차 공제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 개정으로 지침서 마련에 여념이 없는 공제조합 보상팀.

2005년 제작된 보상실무지침서의 개정작업이 2013년 7월부터 시작되어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였다.

보상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변경된 많은 지침들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차례 자동차공제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등이 개정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침서를 재정 보완하고 있으며, 금번 지침서를 개정 보완함에 있어서는 복잡한 보상실무를 새로운 예시 및 알

기 쉽게 보상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판결례와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2013.11.19(화) ~ 2013.11.22(금) 4일간 지부에서 감수자를 지원받아 보다 철저한 감수 작업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사진 참조)

이르면 2014년 3월쯤 대인실무 지침서 개정작업이 완료되어 보상 직원들의 보상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http://www.개인택시.org> 으로도 기사확인 가능합니다.



어르신 안전하십니까?

어르신 보호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주름을 만드는 것은 세월 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키워낸 사람, 어르신

잠시 기다려 주는 여유와 배려하는 마음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거리를 만듭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갑오년 2014년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희망과 감동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업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연합회에 감사드리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택시발전법안과 감차정책이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조합에서는 택시 승객의 편의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택시 승차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120다산콜 불편신고접수를 줄이고자 택시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개인택시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권수 이사장



존경하는 개인택시 가족여러분!
희망찬 2014년 새해(甲午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우리 조합은 많은 변화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보람과 성취 또한 컸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LPG충전소 및 이동통신대리점 등의 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 그 이익금으로 택시요금 개정 수리비는 물론 디지털미터기도 외부 지원 없이 전액 무상으로 장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간 성심을 다 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앞으로도 복지사업 활성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복지혜택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택시영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성우 이사장



늘 그랬듯이 새해를 맞는 올해도 약속하는 조합, 변화하는 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합니다.
우리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택시업계를 발전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31일 택시발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한대로 모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택시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택시 공급 과잉 해소 방안 등이 법적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등 하위법 제정이 택시발전법 시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조합은 연합회와 힘을 합쳐 하위법 제정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해로 만들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늘 기원합니다.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우덕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님!
갑오년 한해가 웅장한 빛을 발하면서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원님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업계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하여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기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승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개인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만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저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조합원의 수익증대 및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사업을 추진코저 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민환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갑오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가정의 평안과 항상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우리 전체 개인택시조합의 업권신장과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새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열악한 교통 현장에서 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되고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하였다는 자랑스런 새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문옥 이사장



2014년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어려운 경영여건과 근무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조합원님께 찬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택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우리업계에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량제 산정으로 인한 단순한 감차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우리 택시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정상적인 택시운영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며 우리 조합원들도 조합을 중심으로 똘똘뭉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임원 및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저에게 3년의 기회를 주신만큼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순락 이사장



《또 다른 시작, 할 일은 하고 갈 길은 간대》
또 한해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과 기대는 늘 우리를 속이고 말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면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는 시작이라는 말에 대한 기대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올 한해 조합 슬로건을 『변화하는 조합, 신뢰받는 조합』으로 설정하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력을 넣고 있지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해에도 임대의원,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약속을 꼭 지키는 이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 한해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창영 이사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창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16만 4천여 조합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며, 모든 일들이 소망하고 염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제도 개선 등 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이루면서 대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올 해는 청말 띠의 해입니다. 청말과 같이 힘차게 뛰면서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올해에도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분골쇄신하는 조창영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주원 이사장



존경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지난 한해는 세계 경제침체 및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지만,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단합된 힘을 보여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4년 올 한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서, 우리 업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혼연일체가 되어 택시에 부과되고 있는 모든 부가가치세 면제, 불합리한 법 개정 등은 물론 각 시·도의 현안문제를 모든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밝아오는 2014년 갑오년 말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깃들어 힘차게 그리고 열심히 달리는 새해가 되시기 바라며 우리 개인택시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배판술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다사다난한 2013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조합원의 내부에너지를 결집하여 우리 업권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지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더 나은 영업환경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힘이되어 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연합화와 협력하여 택시 발전법으로 인한 변화에 우리 도조합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감차 보상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경남도와 관내 시군과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남완 이사장



존경하는 16만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새해 가정에 힘찬 상승의 기운으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꿈꾸는 갑오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변화로 개인택시 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해 조합원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합니다

침체된 택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 중심의 택시발전법안에서 우리업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며 재산권인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현행대로 유지 외에도 진정 택시업계의 이익이 반영되고 택시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택시지원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16만 개인택시 사업자의 단결된 힘으로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한 16개 시도 이사장들이 꼭 실현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해경 이사장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지나고 희망이 가득한 201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큰 희망과 기쁨이 함께하시는 한해되시길 바라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는 복 많이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충남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2014년도에는 조합이 더욱더 투명할수있도록 행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더 강화할것이며 2014년은 무엇보다 택시발전법안에 우리의 요구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시행되는 첫해가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내야하는 중요한한들이 많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각시군 지부장님들의 힘을 합쳐 추진하는 사업들이 빈틈없이 성취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개인택시의 업권을 되 살릴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돌식 이사장



조합원여러분 희망찬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을 보내고 희망찬 갑오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택시대중교통 거부권 행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대체법안으로 발의한 택시발전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침체된 개인택시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겨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한치의 흐트림 없이 주마가편(走馬加鞭)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향해 달리는 갑오년의 말고삐를 더욱 더 부여잡고 채찍질하며 우리 개인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개인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상익 이사장



갑오년의 새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지난해를 되새기며 새해에는 희망과 안정 속에 기쁨이 넘쳐나시길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택시 상을 구현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택시선진화 초기 정착과 조합원의 복지향상 및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은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와 택시연료 자유화등 차량구입 및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토록 전국 이사장들과 총력을 기울여 실현 시키겠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여명을 밝히는 태양처럼 개인택시 가족이 하시는 일마다 날로 번창하시고 작은 선행에도 감동하는 삶이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며 항상 안전운행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최현태 이사장



존경하는 16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16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새 희망과 새 출발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택시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은 우리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희망보다는 좌절을 안겨주어 왔습니다.
 이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 합심 단결하여 또 다시 도전과 열정으로 새해를 설게 합니다.
 금년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16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한분 한분 마다 뜻하신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희망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아쉬운 계사년 한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갑오년은 조합원 모두가 우리의 업권과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택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조합의 성장동력은 조합을 중심으로 오직 조합원님의 단합된 힘이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올해는 택시발전법이 통과되어 내년이면 발효됩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올 한해를 침체되었던 우리 택시업계에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준비 기간으로 삼고 조합원과 함께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항상 건강유지 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www.klpg.or.kr

깨끗한 내일을 위해 부르릉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청정 에너지
더 힘찬 자동차를 만드는 파워 에너지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그린 에너지
우리에게는 LPG가 있습니다

2014년도 사랑드림장학금 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 LPG 희망충전기금 장학생 -

01. 신청기간

- 2014. 1. 13(월) ~ 1. 24(금) 18:00까지

02. 신청자격

-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가장자녀 중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 중이면서 공고일 현재 1개 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학기 2개 학기 이상인 재학생 (기수혜자 제외)

03. 선발인원

- 총 250명 (법인, 개인 각 50%)

04. 지원규모

- 장학금 : 총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2개 학기 지원)

05. 신청 및 문의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문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장학관리부 사랑드림장학금
담당자

* 제출서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업무처리지침을 확인 바랍니다.

Clean Energy, Clean Tomorrow

 **대한LPG협회**

택시발전법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 2013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24일 국회제출 통과된 택시발전법은 정부와 택시업계간의 5개월여동안 20여차례 의견수렴을 하는 진통끝에 12월 12일 여·야 국회의원 간에 만장일치로 극적인 합의로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공급 과잉 해소」, 「운전자 소득증대」,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택시발전법이 발효 5년 후에는 개인택시 수익금이 대당 연 328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치를 발표했다.

■ 택시 정책심의 위원회 설치(제5조)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 택시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책을 세우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정지원 및 조세 감면(제 7조, 제 14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조례를 제정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법조문에 따라 ▲ 감차보상,

친환경 차량 대체(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EURO-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택시에 대해 화물차, 버스 수준(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 국가 또는 시·도의 자금 보조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차량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할 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공급과잉해소(제 9조, 제11조)

▲ 시·도 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따라 시·도 지에게 택시 실태조사 및 사업 구역별 총량계획 의무 부과·국토부 장관

재산정 권한 부여

▲ 과잉 공급 지역에서는 신규 면허 제한(제 10조) 지자체장의 감차 계획 수립 시행 의무 부과 및 감차 재원 등 필요사항 규정

■ 운송 종사자 복지기금(제 15조)

택시사업자 단체는 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 종사자의 복지 기금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제 13조)

사업자 투명성 확보·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택시 운행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택시 요금 미터를 연계하여 운송수입, 운행정보 등 운행현황을 실시간 파악

■ 준수사항 강화(제 16조, 제 18조, 제 23조)

운송 종사자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분을 강화하되 세부 처분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과 국토부령에 위임

■ 추진방안

▲ 2014년 실태조사 및 총량 계획 수립 결과 과잉 공급 지역의 법인·개인택시 면허 총량을 초과한 대수 감차

▲ 감차규모 및 배분 비율은 감차위원회 결정

▲ 감차 재원은 정부·지자체 감차 예산과 업계 자체 부담금 등으로 연도별(5년간) 감차 소요 재원 확보

MG 영업용운전자공제 출시 기념 특별행사

한 달에 2만원대 금액으로 갱신없이 운전자+상해+입원 보장
(본 상품은 7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0~60세까지 동일공제로 월 **23,510원**
61~70세까지 **2만원대** 차등공제로

- ▶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한 보상을 MG영업용운전자보험으로 해결!
- ▶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비용부터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상해입원비+깁스+골절비용까지 보장

※ 자세한 상담은 본점 및 지부에서 가능합니다.

I 보장내용 및 공제료 수준/(기준 : 3,000만원, 순수보장형, 20년 만기, 20년납, 월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공제료(원)
기본계약	교통상해시방공제금	3,000만원	4,800
	교통상해우유장애(3~100%이하)	3,000만원 X 지급률	
의무부가 특약	벌금	2천만원 한도	1,460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한도	1,140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12,450
선택특약	면허정지위로금	3만원	330
	면허취소위로금	300만원	480
	상해용타성형수술비	500만원 한도	130
	교통상해입원비	1만원	1,370
	강력범죄위로금	300만원	90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만원	540
	골절수술비	50만원	250
	화상진단비	30만원	120
	화상수술비	100만원	10
	깁스치료비	10만원	340
	합계	-	-

2014년 주요 사업계획

기본목표

1.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2. 경영여건개선 및 세제개선
3. 서비스향상 및 교통안전 예방활성화
4. 단체 활성화 및 홍보활동 강화

1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택시제도개선 적극 추진
 - 대중교통육성법 및 택시발전법에 대한 객관적 평가작업 추진
 -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법안을 개발하여 의결기구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적극대응
 - 개인택시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매입세) 면제, 택시연료에 경유, CNG 등 우리업계 요구조건이 관철되도록 적극 추진
- 택시감차보상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 국비지원율 상향조정, 정부예산에 감차보상금 증액 건의
-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 건의
 - 택시지역별 총량제 산정 방식에 시간 실차율 반영 개선 등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도입 적극 저지
 - 여객수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도 도입 적극 대응
- 차량청결상태 등 확인점검제도 위탁업무로 전환 추진
 - 조합이 실시하는 차량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조합의 위탁업무로 추진
-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 개선추진
 -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급여수준 상향조정
 - 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리운전 허용
- 대여자동차 제도개선 및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추진
 - 대여자동차의 가맹사업제도 도입반대 및 운전자 알선 원칙 허용 적극반대
 - 국토교통부에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처벌건의
- 자가용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적극추진
 - 대리운전의 자동차 범위를 비사업 승용자동차로 제한
 -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
 - 대리운전자자격시험 및 대리운전 교육제도 도입
 - 개인택시사업자의 자가용 대리운전 참여 추진
- 신규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상속금지제도 개선 추진
 - 신규개인택시도 종전의 개인택시면허와 같이 양도·양수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추진
-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시설 적극제지
 -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적극반대

- 전국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에 대한 심층분석
 - 현행 브랜드택시 활성화 등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 허용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에 운행
-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허가 조건을 종전으로 개선
 - 9인승 이상 → 26인승 이상으로 강화
 -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 학교, 유치원으로 강화

2 경영여건개선 및 세제개선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부가가치세 면제로 감차재원 마련
 -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수입증가효과 기대
-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
 -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유가보조금 일몰연장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진
 -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는 세제혜택이 적어 경영상 어려운 상황 도래
 - 차량유지에 소요되는(잡유, 타이어, 정비비 등)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사업경영개선도모
- 택시연료의 다변화 추진
 -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 CNG 등으로 확대 추진하여 경영부담 완화
 - 유종의 다양화 추진으로 차량의 선택의 폭을 확대
- 택시연료(LPG부탄) 가격안정화 추진
 - 국제가격(CIF)과 환율에 의한 가격결정 및 원가내역서 등 공개
 - LPG 할당관세 영세율 일몰기간 연장 추진
 - 국외 LPG공급 독점과 국내수요과점(6개공급사) 개선을 위한 LPG 공급체계 다변화
 - LPG 가격결정의 투명화와 불합리한 유통구조개선
- LPG 공급사에 대한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 LPG 정유사와의 민사소송 지속 추진
 - 소송의뢰 변호인단과 긴밀 협력체제 구축
 -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제반 증빙자료 제출 등
-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 취득세 전액감면추진
 - '15. 12. 31까지 취득세 100분의 50이 감면되나 전액을 감면하여 사업경영개선에 도모
 - 차령제한이 법제화 규정이므로 차량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전액 감면
- 개인택시 차량 대폐차시 재정지원
 - 강제폐차로 인하여 국가의 자원낭비와 자원마련에 따른 경영 압박요인
 - 차령에 따른 강제 폐차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지원 추진
- 택시운임·요금 인상주기 정례화
 - 택시요금 인상주기를 2년으로 정례화 추진
 - 각 시·도 소비자보호 조례의 소비자 정책심의에서 삭제(지방공공요금에서 배제)
- 택시 승차인원 할증, 주말 및 공휴일 할증제 도입
 - 승차인원 할증제 도입추진
 - 심야 및 공휴일 할증제, 근로자들이 휴무하고 있는 시간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입추진
- 친환경차량 도입
 - 전기차, 수소차 등 차량 구입에 따른 정부재정지원

적극 추진

3 서비스향상 및 교통안전 예방활성화

- 교통사고예방활동 및 서비스개선유도
 - 좌석안전띠 매기 캠페인 적극전개
 - 좌석안전띠 스티커 부착
 -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금지
 - 정지선 지키기 및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 친절운동전개 및 운전자 제복착용 적극유도
- 콜 시스템을 통한 '브랜드 택시' 확대유도
 - 콜 장비 등 각종 서비스기기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 건의
 - 조합원의 가맹점 가입 적극유도
 - 택시 예약문화 유도로 배회영업 지양
-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 및 피해구제제도 확립
 - 차량의 서비스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장비(영수증발급기,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신용카드결제기 등)의 설치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건의
- 에어백 재정지원 적극추진
 - 제조사 에어백 의무장착에 따른 차량가격 상승예상으로 정부지원 필요
- 제조사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및 A/S건의 적극추진
 - 택시차량의 품질 및 안전문제로 인한 분쟁발생시 리콜 등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책 강구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정부지원 추진
 - 노화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 건의
- 교통안전제도 규제 개선
 -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 등 개선
 - 규제관련 입법안에 대한 운수단체 공동대응
 -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추진

4 단체 활성화 및 홍보활동 강화

- 단체 활성화
 - 사기양양을 위한 모범조합원 및 임·직원 포상(창립기념일, 육운의 날, 기타)
 -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관리시스템 운용방안 개선
- 홍보 및 행사
 - 연합회 신문제작 배포를 통하여 연합회 사업추진실적 홍보 및 정보제공
 - 마스크 홍보를 통한 개인택시 이미지개선 홍보활동 강화
 - 자연보호행사 및 체육행사 실시
 - 육운의 날 행사 적극 참여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교통문화 창달
 -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추진사항 등 적극 홍보
- 사회복지사업
 - 고아원, 군경 및 불우이웃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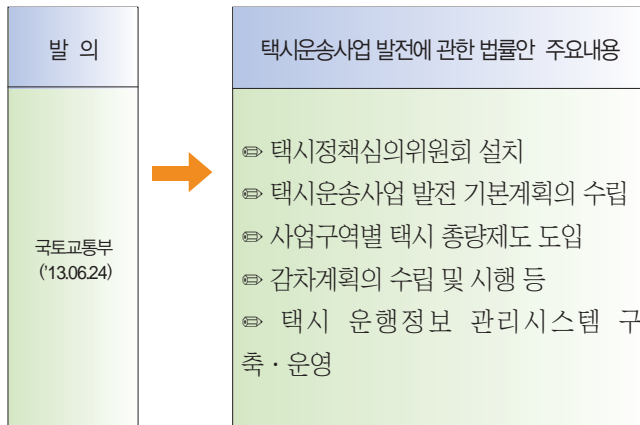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단위:원)

항 목	2014년 예산
◎ 세입	1,970,719,600
회 비	1,669,719,600
이 월 금	300,000,000
기타수입	1,000,000
◎ 세출	1,970,719,600
1. 사 무 비	966,181,700
○ 인 건 비	616,661,300
· 급 료	323,352,000
· 상 여 금	193,116,800
· 수 당	100,192,500
○ 물 건 비	349,520,400
· 여 비	4,680,000
· 공공요금	12,648,000
· 제세공과금	5,090,000
· 차량유지비	52,440,000
· 수 용 비	17,700,000
· 수수료 수선비	5,460,000
· 시설관리 유지비	36,000,000
· 복리후생비	215,502,400
2. 사 업 비	750,570,000
○ 물 건 비	193,920,000
· 여 비	50,900,000
· 수 용 비	87,020,000
· 광고선전비	56,000,000
○ 판 공 비	289,200,000
· 기관운영 판공비	54,000,000
· 특별판공비	163,200,000
· 홍보활동비	72,000,000
○ 이 용 료	30,000,000
· 수 수 료	30,000,000
○ 선진화지원비	237,450,000
· 회 의 비	166,550,000
· 사회복지비	10,000,000
· 포 상 비	60,900,000
3.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구입비	25,000,000
4. 분 담 금	3,600,000
○ 분 담 금	3,600,000
· 교통개발연구원분담금	-
· 단체회비 분담금	3,600,000
5. 적 립 금	120,000,000
○ 적 립 금	120,000,000
· 퇴직적립금	120,000,000
6. 예 비 비	105,367,900
○ 예 비 비	105,367,900
· 예 비 비	105,367,900

2013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 통과 적극 대응

○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하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13. 06. 24)하였음. 동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석현의원 등 32인 및 유정복의원 등 11인 등이 각각 발의한 2건의 「택시운송사업진흥 관련 특별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해양위원회(13. 12. 12), 법제사법위원회(13. 12. 30)를 거쳐 제 32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13. 12. 31)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률안은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 연합회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13. 1. 24~2. 24)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에 대하여 대중교통으로 역할 하는 택시현실을 무시하고, 그 동안의 현안문제를 짜깁기한 졸속법안이며, 택시 업계간에 분란만 야기하는 법률안임으로 개인택시 업계는 강력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13. 2. 13)와 규제개혁위원회(13. 3. 25, 4 12)에 제출 하였다.

주요내용

- ◎ 공급과잉지역 신규면허,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 조항 삭제
- ◎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신설 삭제
- ◎ 운수종사자의 정년 70세로 규정 삭제
- ◎ 택시의 운행정보 관리 반대
-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승차거부, 중도하차 금지, 부당 운임 금지, 합승금지, 영수증 미발급 금지) 신설 반대 등

□ 규제개혁위원회는 '13. 3. 20 제30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당 연합회 강력 반대 의견서 중 ▶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조항 삭제, ▶ 운수종사자의 정년 70세로 규정 삭제 등 건의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음.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노·사4단체는 공동으로 택시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진행사항 및 연합회 추진사항
'13.06.18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10. 1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건의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9인) 등
10. 26	□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간담회 ☞ 경기조합 조창영 이사장, 부천시 김희석 조합장 등 15인 참석
11. 07	□ 새누리당 김태흠의원과 간담회 ☞ 충남조합 김해경 이사장, 보령시 홍성길지부장, 연합회 등 3인 참석
11. 07	□ 제320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 택시관련 법률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11. 1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연합회·시도조합 의견서 제출 ⇒ 국토교통위원회 (31인) 및 기획재정위원회(26인) ☞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매입세) 면제 ☞ 택시연료에 경유, CNG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다변화 및 유가보조금 지급
11. 11	□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 간담회 ☞ 경기조합 시흥시 조석재 조합장 등 4인 참석
11. 13	□ 제32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 산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 택시관련 법률
11. 14	□ 제320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 계류
11. 15	□ 제320회 국회 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 계류
11. 17	□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 간담회 ☞ 경기조합 조창영 이사장, 남양주시 박일석 조합장 등 6인 참석
11. 18	□ 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 간담회 ☞ 경기조합 조창영 이사장, 파주시 윤우석 조합장, 고양시 편창대 조합장, 연합회 등 7인 참석
11. 21	□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 간담회 ☞ 경남조합 배관술 이사장, 함안군 황근철·의령군 송복안·합천군 이호충지부장, 연합회 등 7인 참석
11. 26	□ 택시발전법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간담회 참석 ☞ (국회) 박상은의원(주제), 윤후덕·민홍철·임내한·이장우·조현룡·이현승·문병호의원 ☞ (국토부) 2차관, 교통물류실장, 종합교통정책관 ☞ (택시업계) 개인택시연합회장, 법민택시연합회장, 전국택시노련 상임부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련 위원장 ☞ 연합회 건의 : 현행 유가보조금 감차재원 투입

일 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진행사항 및 연합회 추진사항
11.26	절대 불가, LPG 부가가치세 면제,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감차보상금액은 정부-지자체-업계가 공동 재원 마련
12.0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 제출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9인)
12.06	□ 제320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 계류
12.09	□ 제320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 계속 심사
12.11	□ 택시발전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건의서 제출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9인) ⇒ “신규택시운송사업의 제한 등” 조항이 택시감차를 우선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택시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감차재원 조성 못한 경우,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등 양도 허용) 등
12.1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시도조합에 통보
12.12	□ 제321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통과
12.16	□ 연합회 제15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및 국토부와 간담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맹성규 국장, 택시산업팀 양장현 과장, 김유인 사무관 (우리업계) 연합회장 및 시도조합이사장
12.1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연합회와 국토부 협의사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31인) 통보
12.17	□ 제321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 산회 ⇒ 전남조합 이사장 김남완, 광주조합 이사장 김문옥, 연합회 등은 소위위원을 상대로 우리업계 의견 적극 전달
12.2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이이재 의원 수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31인) 건의
12.26	□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전남조합 이사장 김남완, 강원조합 이사장 김주원, 연합회 등은 상임위원을 상대로 우리업계 의견 적극 전달
12.30	□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결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통과
12.31	□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결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재의결 적극 추진

□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공동명의로 금년 제313회 국회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택시 포함과 관련하여 발의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 하여 줄 것을 국회, 정부 등에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노·사4단체는 공동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성명서 발표, 대표자회의, 간담회,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추진 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사항
'13.01.17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 즉각 공포 관련 성명서 발표 - 정부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즉각 공포하라!!!
01.21	• 전국시도 택시대표자 비상합동 대책회의 개최 - 향후대책, 결의문 의결, 촉구문 제출 등
01.31	•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토해양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5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택시업계 및 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을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함.
02.02	• 주승용국토해양위원장 초청 간담회 참석

02.15	• 국토부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당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업계의 저지로 무산됨.
02.18	• 국회 택시관련법(대중교통법안, 택시지원법안) 간담회 - (국토교통위) 주승용 위원장, 강석호 간사, 이윤석 간사 허태수 수석전문위원, 김요환 전문위원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대중교통과장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유병우 회장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갑윤 직무대행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 • 국토부와 택시업계간의 의견차이로 합의 결렬
02.19	• 택시 노·사 4단체 기자회견 -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 촉구 -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비상 합동총회 개최 알림
02.20	•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 개최 - 13:30-16:45 여의도 문화마당 - 택시 관계자 약 2만5천 여명 참석 - 새누리당 정우택의원 - 전국 택시 운행 중단율 : 약 32.1%(국토해양부)
02.28	• 국토부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300여명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공청회 저지
03.06	•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간담회 참석
03.26	•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대국민 홍보관련 4개단체 회의
04.08	• 택시 대중교통법관련하여 4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 -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홍보 캠페인 추진계획 확정
06.07	• 택시지원법안 관련하여 4개 단체 성명서 - 택시지원법안 철회하고 택시 대중교통 인정하라!!!

3 택시연료 다변화(CNG, 클린디젤)를 위한 추진사항

□ 연합회는 CNG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등) 및 클린디젤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건의를 기획재정부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께 아래와 같이 수 차례 건의하였던 결과 정부예산으로 CNG 개조 및 충전소 설치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은 2015년 9월부터 지급 하는 내용으로 택시종합대책이 발표되어 연합회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음.

일 정	추진사항
'13.08.26	연합회 안민석 국회의원실 방문 CNG택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 건의서 제출
08.26	연합회, 대구개인택시조합이사장 등 CNG 예산 지원과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방문
08.27	연합회 정성호의원실, 류성걸의원실 방문 CNG택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 건의서 제출
09.06	연합회, 대구개인택시조합이사장 등 CNG 예산 지원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방문
09.30	연합회, 국토교통부 종합정책과, 택시산업팀장, 대전·충남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조합원 등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장, 사무관 면담
10.01	개인택시연합회 및 법인택시연합회,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 등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국장, 환경에너지 세제과장 면담

4 국토교통부 간담회

일 정	추진 사항
'13. 0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운수단체장 및 업계대표,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 택시공제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TF』에서 공제조합 법인화 등에 대하여 반대
0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업계4개 단체대표와 국토교통부 간담회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도입 반대 - 자동차대여사업 운전자 알선 확대 및 가맹 사업 도입 반대 - 우버의 시장진출에 대하여 강력 대처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반대
07.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차관 간담회 (연합회) 연합회장 및 시도조합 이사장 등 36명 (국토교통부) 차관, 교통물류실장, 종합교통정책과, 택시사무관 - 개인택시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건의
0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간담회 - 양도·양수 3회 제한, 상속 금지 등 폐지 - 70세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폐지 등 건의

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 공동명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 06. 24)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위원장,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강력히 건의('13. 08. 13) 하였다.

문제점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이 도입 될 경우 - 새로운 업종 도입으로 여객업종간 분쟁 촉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을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 할 경우 - 여객운송질서 문란과 사회문제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 금지규정을 현행대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대여사업 가맹사업제도가 도입 될 경우 -가맹사업 도입은 오히려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대여사업 가맹사업제도의 도입을 반대

□ 새누리당 함진규의원 등 10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3. 02. 13)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

□ 민주당 윤후덕의원 등 20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3. 08. 22)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희망택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민주당 박완주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이장우의원 등 17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13. 06. 24, 05. 03)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 등

□ 새누리당 이철우의원 등 13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3. 07. 11)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 민주당 박병석의원 등 11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3. 07. 18)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 전조등 켜기 의무화

□ 민주당 민흥철의원 등 11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3. 07. 19)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상기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통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해양위원회('13. 12. 09), 법제사법위원회('13. 12. 30)를 거쳐 제32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13. 12. 31) 하였으며,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4단체가 추진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 금지규정을 현행대로 유지, ▶자동차대여사업 가맹사업제도의 도입 삭제는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률안은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도입
- 여객자동차안에서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 전면 금지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 등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공포

□ 댜형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새누리당 박성호의원 등 10인('12. 09. 25), 민주당 배기운의원 등 10인('12. 11. 27)이 대표발의 의안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13. 04. 25), 이를 통합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3. 04. 25) 되어 공포('13. 07. 16) 됨. 이에 따른 하위법령이 개정 되어 시행될 경우 댜형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공포('13. 07. 16) 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14. 01. 14) 및 시행규칙 ('14. 01. 16)을 개정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 ▶ 운송사업자가 위반한 경우위반 차량에 대하여 1차 운행정지(60일), 2차 감차처분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체에 택시 유사표시 등의 장착 ▶ 운수종사자가 위반한 경우 1차 자격정지(60일), 2차 자격취소 -법률에서 위임한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장장비 장착 ▶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 대응

□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



조합탐방

대전조합을 가다



올해 상반기에 전 조합원에게
지분권 현금배당 실시한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분기점이란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 육상교통의 요충지인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육상교통의 한축인 개인택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조합은 5,482명 조합원들의 운송여건 개선을 위해 오늘도 쉬없이 전진하고 있다.

대전조합은 1989년 충남조합에서 자산분리하여 출발했다.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대전조합은 1994년 대전시 중구 삼성동 78-1번지에 대지 500평을 마련 지하 1층 지상 3층의 조합사옥을 준공, 복지매장과 경정비공장을 갖추고 2000년 9월 1일에는 중구 인영동에 LPG충전소를 건축하고 (주)대전개인택시충전소 설립 별도의 법인체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수익사업을 가동했다.

또한 2004년에는 조합원수가 증가하여 3층의 사옥을 4, 5층을 증축하고 복지조합의 면모를 갖춘다.

◇ 수익사업 개발 성공

(주)대전개인택시충전소 설립으로 출발한 조합원 수익사업은 2003년에는 상서지점충전소를, 2005년에는 대덕지점충전소를 연달아 개소한 대전조합은 순풍에 돛단배처럼 복지조합을 목표로 순항했다.

복지조합 실현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던 대전조합은 2007년 김성우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는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충전편의를 고려하여 2007년 12월, 동대전지점충전소를 개소하고 이듬해에 대덕충전소를 폐소하여 충전사업의 지역균형을 맞추어 조합원들의 충전소 이용율을 높였다.

복지사업의 꽃으로 불리는 충전소 경영으로 대전조합은 2000년 0당 31원 할인판매를 시작하여 2009년에는 0당 60원으로 할인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13년 동안 할인누적금액이 123억원이나 된다.

전체 조합원의 복지사업 인식이 높아지면서 80%정도가 이용하는 충전소 수익사업은 지난해에는 월평균 1억4500만원의 할인혜택이 충전소 이용 조합원에게 돌아갔다.

또한 2008년부터 충전소 이용 우수조합원에게 쌀, 엔진오일, 생활필수품 등 제공한 사은품이 7억4000여 만원어치나 된다.

“우리 조합이 경영하는 충전소는 꼭 필요한 수익사업입니다. 충전소 경영으로 얻어지는 수익금 전부가 조합원에게 분배될 뿐 아니라 조합이 충전소를 경영하는 효과는 시중 충전소로 하여금 정품, 정량을 꼭리하지 않게하는 견제역할도 하지요. 또한 충전소를 3개소나 직영하는 (주)대전조합개인택시충전소의 주인이 조합원이라는 긍지를 갖게 하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조합의 충전소 경영 필요성을 김 이사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 운송수입 증대에 조합역량 집중

최근 택시업계는 공급과잉으로 깊은 경영난에 빠져 있다. 택시영업의 경영환경과 영업체질을 개선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하지 않고는 경영난을 타개할 수 없다는 절박감은 김 이사장을 무겁게 억눌렀다. 김 이사장은 조합의 모든 역량을 조합원들의 운송수입 증대에 집중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브랜드 택시 추진을 하나의 대안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브랜드 택시에 갖출 첨단시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형편이 걸림돌이었다.

김 이사장은 브랜드 택시 사업계획서를 들고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청을 방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과 시장을 만나 브랜드 택시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 의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예산편성을 설득하는 양면작전을 끈질기게 펼쳤

다. 드디어 2007년 대전시로부터 9억7000만원 규모의 브랜드 택시 재정지원 약속을 받아낸다.

김 이사장은 곧바로 조합내에 가칭 양반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자선정을 비롯 브랜드 택시 참여 기준을 만들어 참여 조합원 선정작업을 하고 2008년 3월 3일 800대의 브랜드 택시 발대식을 갖고 브랜드 택시 사업을 출범했다.

어렵게 브랜드 택시의 첫단추를 끼고 나니 2차, 3차는 순조로웠다.

2009년에도 2차로 대전시로부터 4억8000만원 재정지원을 받아 500대 규모의 브랜드택시를 증차했다. 또 2012년에는 차량 장비 지원비 7억9000만원, 콜센터 구축비 1억4000만원을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아 브랜드 택시 1,700대를 증차하고 대전시 중구 대둔산 소재 케이티 산성빌딩 3층에 독자적인 콜센터를 구축 14명의 전문 상담원이 콜을 받고 있다.

대전조합은 조합택시 5,482대중 54%인 3,000대를 미래형 콜택시로 전환 운송수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양반콜은 대전시민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인정받아 총 고객수 75만명, 고정고객수가 월 4만명이라고 조합은 집계한다.

◇ 장애인 콜택시 운영

김 이사장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영수완을 발휘하여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한다.

대전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대전시 시각장애인 연합회와 전일예약제 콜택시 운영계약을 맺고 조합원 5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택시는 일반영업을 하지 않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2시간 휴식시간 포함)을 운행하고 대당 임차보전금으로 2,310,000원을 받고

일반택시 요금의 30% 수준의 요금을 장애인 콜택시를 받고 운행하는 대당 수익금은 250~260만원이어서 안정된 수입금 보장 때문에 희망경쟁율이 높은 편이다.

이용대상도 장애 1급~2급의 거동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으로서 택시구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택시는 일반승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로 운행하는 55대만큼 감차를 한 효과를 얻는다.

◇ 2014년 추진사업

대전조합은 2014년 상반기중에 전 조합원에 대한 지분권에 대한 현금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대전개인택시충전소와 복지사업소(복지매장)의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2012년 9월 25일 조합원들에게 복지사업비로 210,000원을 지급한 대전조합은 오는 9월에 지분권 현금배당을 할 계획이다.

또한 양반콜의 규모가 전 조합원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확대되어 있어 콜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전조합은 월 25,000원씩받는 월 회비를 2014년 1월부터 21,000원으로 인하하여 브랜드택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담원에 대해서는 친절 봉사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평가제도를 시행 상담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소통의 리더십으로 직원 채찍

대전조합은 김성우 이사장과 함께 김천겸, 박재홍 감사와 강구현, 민경립, 박춘실, 이석균, 이성우, 이영노, 차영식 등 8명의 이사가 주요현안을 결정하고 김기백 전무이사를 비롯 홍순자 총무과장, 홍신자 업무과장 등 11명이 사업조합 행정업무를 비롯 조합원의 민원을 처리한다. 복지매장, 경정비 등의 복지사업소 인원 4명, 충전소 42명, 콜센터 16명 등 73명의 현업의 현장을 움직이고 있다.

“대전조합을 움직이는 73명의 거대한 인원이 일사분란하게 창의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김 이사장의 소통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홍순자 총무과장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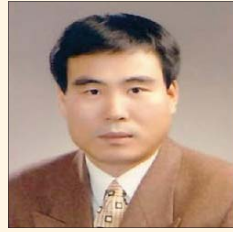
김 이사장은 7대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사무실, 충전소, 복지사업소 등 조합원의 시선이 닿는 곳에 이사장의 핸드폰 번호 '010-5422-0303'을 붙여놓고 조합원과 24시간 소통한다.

<글·김관술>

대전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김기백 전무이사



김천겸 감사



박재홍 감사



강구현 이사



민경립 이사



박춘실 이사



이남희 이사



이성우 이사



이석균 이사



이영노 이사



차영식 이사



강구일 대의원



김태화 대의원



권만옥 대의원



김군수 대의원



김성호 대의원



김용봉 대의원



김창수 대의원



김창수 대의원



김흥렬 대의원



윤용석 대의원



이준교 대의원



류근목 대의원



양승훈 대의원



유명현 대의원



유병관 대의원



임종선 대의원



최병국 대의원



윤백수 대의원



이상국 대의원



이용임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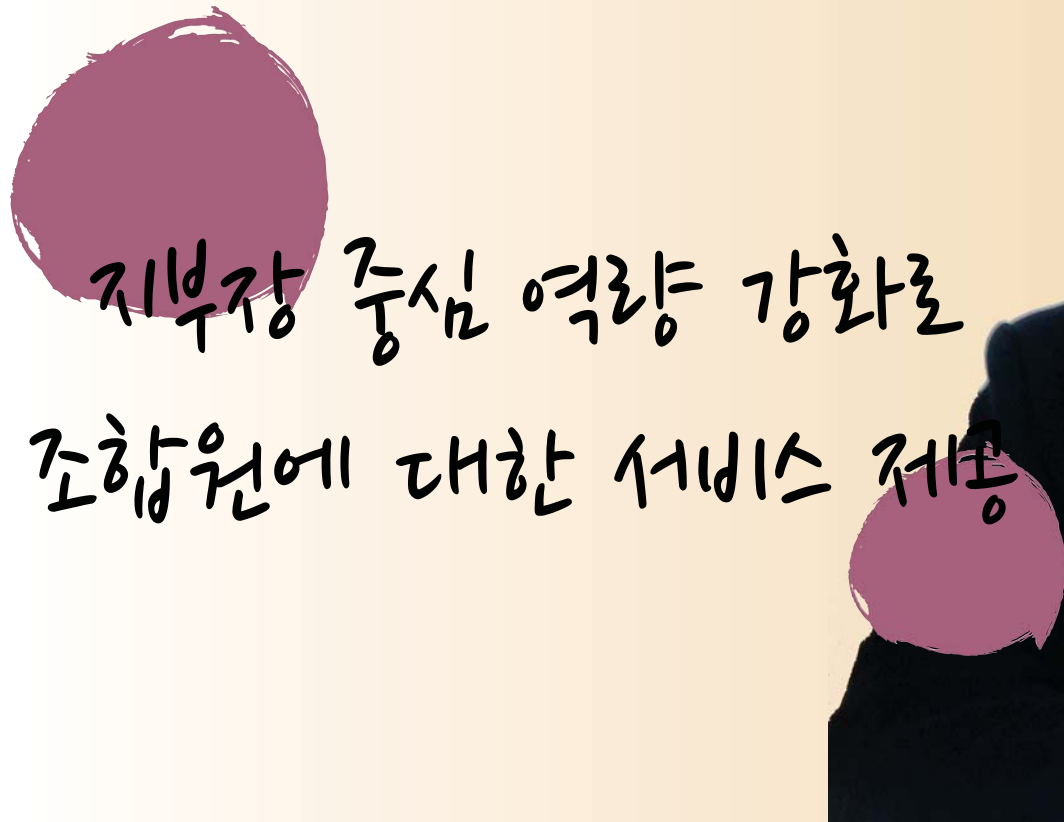


이종섭 대의원



조합탐방

경북조합을 가다



지부장 중심 역량 강화로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역동적인 경상북도.

이런 지정학적 여건을 도정에 반영한 경상북도는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으로 도정홍보 구호로 정했다.

19,030km²의 경상북도의 면적은 전 국토의 19.1%를 차지한다. 상주인구가 269만명인 경북은 39개대학교가 있어 수도권 다음으로 대학이 많은 교육도시이고 전국 문화재의 20%가 있는 문화도시이다. 경북도의 최대도시인 포항시에는 굴지의 포항제철이 있고 구미시에는 산업근대화의 상징인 구미공단이 있어 도민들은 경북인은 산업근대화의 주역이고 미래개척 정신이 강하다고 스스로 평가할 만큼 자긍심이 대단하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지하철이 한곳도 없는 경북도에는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역할을 한다.

전국 16개 시도조합중 7번째로 큰 경북조합은 6,935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졌다. 도 조합 산하에는 16개시 지부와 13개 군 지부가 있다.

시·군지부는 택시운수 행정이 대부분 시·군에 위임되어 있어 복지사업을 비롯 운송여건 개선사업을 관장한다.

한편 도조합은 도조합-시·군지부로 2원화되어 있는 조합운영 체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지부에 대한 역량 강화에 힘쓴다.

◇ 시지부 중심 복지사업

경북도조합 조합원 분포는 시·군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6,935명의 조합원중 포항시를 비롯한 10개시에 6,193명이 집중되어 있고 군위군을 비롯 13개 군지부에는 742명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시지부간에도 기복이 심하다.

포항시(1924명), 구미시(1352명) 지부가 1천명을 훌쩍 넘고 경주시(782명), 안동시(480명), 경산시(352명), 영주시(346명), 김천시(319명), 상주시(232명), 영천시(217명), 문경시(189명) 순이다.

10개 시지부에도 자체 소비 능력이 열악하여 충전소 등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경북도조합 지부중 조합원들의 희망인 충전소를 경영하는 지부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지부가 자체 충전소를 소유하고 있고 2개의 충전소를 경영하는 구미지부와 영주시지부는 임대로 충전소를 경영한다.

2001년부터 자체 소유 충전소를 경영하는 포항시지부는 경북조합중에서 가장 복지사업이 활발하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형산강 도로를 끼고 있는 2,200평의 넓은 대지에 충전소, 2급정비공장, 셀프정비공자, 타이어, 배터리, 미터기, 자동차 부품판매점, 휴게실, 이발소, 구내식당, 매점까지 운영 조합원들의 지출을 아껴주는 복지시설이 고루 갖추어졌다.

지부 복지매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구입가격의 2%의 낮은 이윤을 붙여 판매한다. 조합원들이 지부에 오면 LPG충전, 자동차 정비, 세차는 물론이고 휴식과 식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맞을 수 있는 복지조합이다.

또한 조합원에게는 주식을 발행해 쥐 수익성 분배와 함께 주주라는 긍지를 갖게 한다.

또한 구미시지부는 자체 소유 충전소와 임대충전소를 경영, 양질의 LPG를 싸값에 공급하고 수익금을 배당해 준다. 안동, 경주시지부도 자체 소유 충전소를 경영하고 영주시지부는 임대충전소를 경영, 복지사업을 실현한다.

◇ 브랜드택시 사업도 활발

530대의 해맞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지

부는 대당 130만원이 소요되는 콜 수신기를 도비지원 40%, 포항시지원 40%, 지부복지회 지원 20%로 조합원 부담없이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지부도 카드결제기,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첨성대 콜택시 430대를 운영하고 있고 구미시지부도 카드결제기를 장착한 새마을콜 350대를 운영하고 있고 칠곡군지부는 호이콜 76대를 운영한다.

또한 안동시지부는 안동콜 380대, 문경시지부는 문경세제콜 160대, 영천시지부는 별빛콜 134대, 경산시지부도 삼성현 콜택시 360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도조합은 도비지원을 따내고 시·군지부는 시·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8개 시군에서 2,370대의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택시영업 체질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시·군지부별로 콜택시를 운영하다 보니 브랜드택시 추진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운송수입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경북도를 하나로 묶는 통합 광역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조합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우리조합도 도청이전 시설단지에 500평 규모의 조합부지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도조합이 이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통합콜을 추진, 경상북도 일원이 콜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생각입니다.”

서둘석 이사장은 콜택시에 대한 비전을 밝힌다.

◇ 영상기록장치 94% 달성

영상기록장치 등 지자체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도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군지부로 구성된 도조합은 지자체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도청을 상대로 도비지원이 선행되지 않고는 시·군의 재정지원

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북도조합은 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되자 2009년 7월부터 도청과 도의회를 상대로 도비지원을 요청했다. 서 이사장은 의례히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워 거절하는 경북도를 집요하게 설득 도비지원 30%를 이끌어 냈다.

도비지원이 확정되자 시·군지부도 시와 군을 상대로 예산지원 투쟁을 벌여 소요예산의 50% 지원을 받아냈다. 경북조합은 도비지원 3억2059만2900원, 시·군지원 예산 5억3432만1500원을 받아 6,942대중 6,535대를 영상기록장치를 했다.

◇ 도·농지부간 양극화 해소 노력

10개시 13개군으로 짜여있는 경북조합에는 6,935명의 조합원이 10개시 지부에 6,193명이 조합원이 집중되어 있고 13개군에는 742명의 조합원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농촌지역 군지부 조합원들의 운송수입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도·농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서 이사장은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민에게 택시교통을 제공하는 통학택시와 복지택시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답보상태다.

하지만 2년째 추진하는 통학택시와 복지택시가 지금은 성과가 없지만 도청과 교육청이 안동신시가지로 이전하고 나면 관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2014년도 조합 중요 사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 흑자공제 실현 위해 총력

서돌식 이사장은 매주 월요일이면 공제직원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도민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조합원을 상대로도 공제분담금 절약을 위해서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교육도 병행한다.

교통사고 사고현장에 신속한 출동을 위해 포항, 경산, 구미, 안동지부 등 4곳에는 출장소를 설치 공제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때문에 사고처리 효율성 및 전문성이 높아져 공제지부 흑자경영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공제지부도 올해 중점사업으로 교통사고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욱 안정된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김관술>



▲ 경북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조합 임원 및 지부장들과 함께 택시발전 워크숍을 했다.

경북조합 발전을 이끄는 시·군 지부장

			
강태조 경주시 지부장	김광호 포항시 지부장	김종배 구미시 지부장	김종삼 김천시 지부장
			
배태직 안동시 지부장	박정윤 상주시 지부장	백승 문경시 지부장	남상복 영천시 지부장
			
진정식 영주시 지부장	박헌기 울진군 지부장	조정식 고령군 지부장	김연호 성주군 지부장
			
서상열 청도군 지부장	윤경길 울릉군 지부장	이상주 경산시 지부장	이시탁 청송군 지부장
			
이원건 칠곡군 지부장	이일봉 영양군 지부장	정옥구 의성군 지부장	김현학 예천군 지부장
			
김태호 군위군 지부장	한성국 영덕군 지부장	김승길 봉화군 지부장	



동호회 탐방

남양주개인택시 축구단

매주 수요일은 핸들을 놓고 축구하는 날...
운동장을 뛰면서 심신단련하고 우정을 키웁니다.



▲ 축구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축구를 통해 친목을 키워가는 남양주개인택시 축구단원들.

“축구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축구를 통해서 우정을 키웁니다” 남양주 개인택시축구단 박승희 회장의 축구예찬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합에 개인택시 축구단이 창단된 것은 1990년 9월 28일이다. 37명의 단원이 모여서 운영하는 남양주 개인택시축구단은 올해로써 2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있는 구단이다.

좁은 공간에 갇혀 하루종일 운전노동을 하면서 생기는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35명의 조합원이 모여 창단된 남양주 개인택시축구단은 24년이란 세월동안 운동장을 누비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화합을 키워오고 있다.

“단원들의 나이가 40대에서 70대까지 연령폭이 크지만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축구장에 모이면 나이를 잊고 어느새 축구선수로 변합니다” 정영수 감독의 축구자랑이다.

우리은행의 호의로 일패동 우리은행 축구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축구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축구를 한다.

단원들은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전후반을 45분씩 뛰는 정규시합처럼 할 수는 없지만 25분씩 뛰고 10분을 쉬는 방식으로 전후반 50분을 뛰고 나면 유니폼은 땀으로 흠뻑젖고 하체근력은 튼튼해진다.

“남양주축구단은 비록 정규축구의 시간을 채우지 않고 단축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감독과 코칭스텝이 축구물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축구를 하기 때문에 축구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수 있다”

고 박승희 회장은 말한다.

또한 남양주축구단은 단원들의 축구기량을 향상시키고 축구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기 위해 자체팀끼리 하는 경기는 매달 한차례로 제한하고 3주동안은 개인택시 구리, 양평, 하남 등 인근 조합팀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받아 원정경기를 하면서 축구를 통해서 타 시·군 조합과 교류를 넓힌다.

◇ 격월로 월례회

입회비 10만원, 월회비 1만5000원으로 빠듯하게 꾸려나가는 재정 때문에 운동이 끝나고 나면 회식을 하는 월례회는 홀수달 마지막 수요일에 한다.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한달을 건너뛰어 하는 월례회지만 월례회때는 식사를 하면서 단원들간에 회포를 풀고 우정을 나누면서 친목도 쌓고 택시운행정보를 교환하는 생산적인 모임을 갖는다.

“축구는 상대를 공격하는 운동이어서 몸싸움이나 태클을 자제하도록 당부하지만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때를 대비하여 정관에 부상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회칙에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편입니다.”

지난해부터 회장을 맡아 축구단을 운영하는 박승희 회장은 경기를 할때마다 가슴을 졸인다고 말한다.

◇ 수요일은 축구하는 날

남양주시는 개인택시 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운휴를 정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남양주축구단은 매주 수요일 단원들이 함께 모여 축구를 한다.

“남양주 개인택시축구단은 남양주조합의 유일한 축구단이어서 박일석 조합장으로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박승희 회장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축구단 창립총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아쉬웠는데 25주년이 되는 올해는 성대한 창립총회를 마련, 회원확충의 기회로 삼겠다”고 박회장은 다짐한다.

남양주 개인택시축구단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박승희 회장.

▲회장 박승희(010-9124-7343) ▲부회장 김흥기 ▲총무 김태훈(011-324-0867) ▲감독 정영수 ▲코치 정동현, 유희철

건강상식

한국인 적정 수면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인 적정 수면시간, 잠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한국인 적정 수면시간은 연령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물론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하루에 18~20시간 정도 잠을 자지만, 성장함에 따라 수면시간은 점점 줄어서 청소년기의 적정수면시간은 9시간, 성인의 적정수면시간은 대략 7~8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적정 수면시간에는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수면은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중추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중이거나 질병,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잠자는 시간이 늘게 된다. 성적과 입시에 관한 스트레스가 많은 수험생들이 잠이 늘어난다고 호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른다.

현대에는 수험생,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늘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수면이 부족하면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돼 일의 효율성이 떨어

지는 경우가 많다. 평소보다 4시간을 못자면 반응 속도가 45%가량 느려지고, 하룻밤을 전혀 안자고 꼬박 세우면 반응 시간이 평소의 두 배 가까이 길어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또한, 수면부족은 무엇보다 정신적인 활동을 흐리게 한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나 창의력, 재치, 순발력 등을 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생기가 없고 둔감해지며, 기분이 가라앉아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며칠 잠을 제대로 못자면 쉽게 우울해지고 짜증이나 화를 잘 내기도 한다.

따라서 수면시간을 줄이면, 공부나 업무시간은 늘더라도 오히려 일의 능률이나 생산성은 저하될 수 있다. 특히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나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만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오히려 잠이 부족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에 걸리는 것을 비롯해 궤양, 심장병, 비만, 노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수면시간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이 자

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늘어지게 된다. 그래서 수면과다는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의 대표적인 징후이다. 갑자기 수면시간이 줄거나 늘었다면 수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잠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면, 무엇보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이 있으면 밤에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해 늦잠과 낮잠이 늘어 수면시간이 증가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면 과다증인 기면증과 같은 질병일 수 있으므로 수면이 갑자기 과도하게 늘었을 경우에는 수면상태나 패턴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몸이 경직되는 겨울철에는 제대로 숙면을 취해야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돼 낮 시간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숙면을 취하게 되면 노화된 세포가 새것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된다.



데스크칼럼

택시에어백 설치 의무장착! 반드시 재정지원 수반 되어야

지난 13년 8월 6일 택시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법이 시행되면 택시는 신규등록 차량부터 의무적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을 장착 하여야 한다.

지금 개인·법인을 비롯한 택시업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으로 증차를 하여 과잉 공급상태이며, 자가용 대리운전, 콜밴화물자동차, 렌트카 등의 불법여객운송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유류비 증가, 승객감소로 최악의 경제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장착비용 30~100만(차종에 따라 다름)의 차량가격 상승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법을 위반하여 에어백 미장착 시 사업일부정지(1차30일,2차60일,

3차 90일)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과중한 처벌을 가하겠다고 한다. 앞친데 뒷친격으로 택시업계는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명목으로 각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하였다.

택시업계의 현실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업계의 사정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이법을 공포·시행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부담만 가중할 뿐이다.

우리 택시업계는 탑승객의 안전과 사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에어백장착의 의무화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보험료 상승, 각종 과징금 부과, 운행하지 못한다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누군들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 에어백 장착을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에어백 의무장착에 따른 원

할한 해결을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교통 안전관련 법안은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법률의 한시적 유예를 건의한다.

둘째, 법률로 에어백의무장착을 시행하기전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사가 사업용차량의 차종에 관계없이 운전석 및 조수석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출고 판매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과중한 처벌조항 으로부터 사업자가 자유로울 수 있다.

셋째, 에어백 장착후 카드결제기 등 각종 부착물의 장착 위치 규정이다. 현재 택시는 각종 부착물이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장착하면 마땅히 부착해야할 장소가 없다. 이

에 따른 부착위치에 관한 법 조항도 부재이다.

만약, 현 상태에서 에어백 장착후 무분별하게 부착물을 장착한후 사고가 발생하여 에어백이 전개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띠를 메는 것 보다 훨씬 피해가 클 수가 있다. 반드시 관련 하위법령이 필요하다.

우리 개인택시 16만4천여 사업자는 생계가 위협받는 악조건 하에서도 승객의 편의보호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익적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택시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반드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30만 택시 종사자와 더불어 강력히 건의 한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홍보·지도차장
김도길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선택한 국민택시
현대자동차 TAXI

안전성과 성능은 물론 경제적인 연비와 편안한 승차감까지!
 현대자동차 택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탈수록 분명해집니다

GRANDEUR TAXI SONATA TAXI SONATA TRANSFORM TAXI

HYUNDAI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서비스 080-600-6000 ★그랜저 택시▶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3.0LPI 복합 8.2km/ℓ (도심: 6.8km/ℓ, 고속도로: 10.6km/ℓ) | CO2 배출량: 165g/km | 배기량: 2999cc | 공차중량: 1,620kg (자동 6단(5동급)) ★쏘나타 택시▶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LPI(A/T) 복합 9.3km/ℓ (도심: 8.1km/ℓ, 고속도로: 11.5km/ℓ) | CO2 배출량: 149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65kg (자동 6단(5동급)) > 2.0LPI(M/T) 복합 9.9km/ℓ (도심: 8.9km/ℓ, 고속도로: 11.5km/ℓ) | CO2 배출량: 139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25kg (수동 6단(4동급)) > 2.0LPI(5G) 복합 9.7km/ℓ (도심: 8.5km/ℓ, 고속도로: 11.5km/ℓ) | CO2 배출량: 139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65kg (자동 6단(4동급)) ★트랜스폼 택시▶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LPI(A/T) 복합 7.8km/ℓ (도심: 6.8km/ℓ, 고속도로: 9.6km/ℓ) | CO2 배출량: 174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510kg (자동 6단(5동급)) > 2.0LPI(M/T) 복합 8.5km/ℓ (도심: 7.7km/ℓ, 고속도로: 9.7km/ℓ) | CO2 배출량: 159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60kg (수동 5단(5동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사나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차량내리점의 카운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화원택: 블루점검/케어서비스/긴급출동/블루포인트/전인서비스